

고마운 물

권 예 린

우물가에서
물을 떠왔어요.

조심스럽게
방에 들어가
물담은 바가지안에
수건을 담가놓고
엄마 이마에
살며시 올려놓아요.

그리곤 기도를 해요.
‘엄마감기 낫게 해주세요.’

물이 우리 엄마 살리고
희생하는 모습을 보면
물이 참 고마워요.